

부 적(符籍)

무더운 장마 날씨에 여우별이 비낀 날이었다.

북악산 밑 난곡(蘭谷)은 바위 틈을 흐르는 물소리가 맑았다. 비에
산뜻하게 씻긴 나뭇가지에 별을 그리던 새소리가 청명하였다.

영창을 열고 무료히 앉아서 무심히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관상
사 송명운의 입에서 부지불식중에 “나무 관세음 보살” —— 염불이
흘러 나왔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그는 이렇게 외며 한마디가 끝날 적마다 입술 아래 모아 받친 두
손을 떼어, 옆에 놓인 담배 그릇에 담듯이 쏟아 버리는 것이었다. 마
치 그 관세음 보살이란 무형의 말을 받아 담배 그릇에 싸 담으려는
듯이.

물소리와 새소리 —— 그리고 실성한 사람같이 염불을 그릇에 받아
모으는 오십객의 사나이 ——

우르르 —— 멀리서 천둥이 울렸다.

약 삼십여 년 전의 일이었다. 계룡산(鷄龍山) 보도사(寶道寺)에 정
국대사(淨國大師)라는 고승(高僧)이 있었다.

경기도 용인 사람으로 종문(宗門)은 선산 대사의 문중이었다. 권문 세가의 자손으로서 일찍부터 유탕에 몸을 헐어 왔는데, 스물한 살 때 깨닫는 바 있어 기세(棄世)하고 입산하여 칠 년을 산중 동혈 속에서 선정(禪定)하였으나, 대오(大悟)에 이르지 못하고 팔도를 유랑하다가, 하룻저녁 북망산(北望山)에서 젊은 여인의 끔찍스럽게 미란한 시체를 보고 이른바 부정관(不淨觀)이란 수도를 하였던 것이다.

수도 삼 년에 마침내 대오하여 그 도력이 신통(神通)하였다.

종장(鐘匠)의 아들로 태어나 팔도 사찰을 그 아버지를 따라 떠돌아 다니던 명운이 대사를 본 것은 그가 열다섯 살 때이고, 대사는 보도암 벽에 걸린 유마(維摩)상같이 백수가 늘어진 칠십 노인이었다.

어느 날 보도사에 재를 올리러 온 사람이 있었다. 개불탕 내뫼시고 사승이 연을 메어 돌리는 근래에 없는 큰 재였다.

시주는 서산의 한씨(韓氏) 문중이라 하는데, 재에 참례한 사람이 칠십여 명이고 제물도 풍성풍성하고 모든 것이 흔전한 품이 어지간한 대사가 아닌 듯했다.

상제는 기품이 늠름한 사십 전후의 대장부로, 종시 경건한 치성을 드려 슬픔 중에도 그 어버이의 명복을 비는 정성이 두터워 보였다.

그가 닷새 기도를 마치고 하산한 후 정국대사는 혼잣말같이 “안형(眼形) 삼백(三白)이요 이고청색(耳高青色)하니 필시 적지괴수(賊之魁首)이리라. 비두옹취(鼻頭凝聚)하니 심리 불리하고 인당(印堂) 흑색하고 산근(山根) 중지되니 필유 횡사(必有橫死)이니라.”

이렇게 중얼거렸다.

소년 명운은 눈이 동그래졌다.

그토록 점잖고 그토록 풍격이 높아 보이고 부유한 그 상제를 적지 괴수라는 대사의 말이 너무나 놀라웠다.

그러나 그의 경탄은 그것에 그치지 않았다.

수삭 후 삼남 일대를 어지럽게 하던 대도의 괴수 김병도가 포박되어 효수(梟首)를 당했다는 소문이 산중에까지 들렸는데, 이 김병도가

그 큰 재를 올린 상제였던 것이 알려졌다.

명운은 영특하고 야심적인 소년이었다. 대사를 스승으로 모셔 관상의 오의(奧義)를 극하고 싶었다.

백인 백양으로 다 색다르게 타고난 사람의 상의 비밀을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상서를 배우고 싶다 하였을 때 대사는
“길을 닦고 닦아 마침내 무아 무상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마음의 거울이 삼라만상의 참모습을 비칠 때까지 관상학이란 별다
른 것이 아니니라.”

하고 타일렀던 것이다.

명운은 굴치 않았다. 성가시리만큼 대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민첩하게 시중을 들기도 하였다.

매일 사시(巳時)에 원당(願堂)에서 있는 관음(觀音) 정근에도 빠지지 않고, 하루 네 번의 좌선에도 반드시 참선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수업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

보도암에서도 한 오리 가량 떨어진 칠성당 조그마한 방 한 칸이 그의 수도실이었다. 대사는 명운이에게 둥구미 하나를 주며

“나무 관세음 보살을 외어 이 둥구미가 무거워질 때까지 담아라.”
하였다. 너무 황당한 말이어서 어안이벙벙한 명운이에게 그는 이어 말하기를, 이 닫힌 문을 뚫고 큰 황소 머리가 불쑥 나타날 때까지 관세음 보살을 염하고, 황소 머리가 보이고 둥구미가 무거워지거든 이 문을 열고 나오지 그 전에 나오면 큰 벌이 있을 것이니 명심하여라.”
하고 손수 문을 닫고 나갔다.

그날부터 열두어 살 되는 상제 아이가 하루 두 번씩 밥을 날라 오고 대소변의 처리 같은 시중을 들고는 돌아갔다.

그가 날라다 주는 아침에 죽 한 그릇 밤에 한 흡 밥에 산채 한 보시기 이것이 그의 목숨을 이어 가는 오직 한 가지의 의지였다.

성장시의 한창인 식욕에 이 제한된 식사량은 일종의 고문이었고,

건강한 신체에 금지된 운동은 거세(去勢)와도 같았다.

입으로 관세음을 외우며 그의 마음은 자유로운 외계를 꿈꾸고 만복을 그렸다.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이 고독이었다. 하루에 두 번씩 시계처럼 오는 상좌 아이는 병어린지 명운이가 말을 붙여도 입을 다문 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였다.

바람 소리와 짐승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심심한 산중에 단지 혼자 —— 때로는 호랑이가 벌건 불덩이 같은 눈을 번쩍거리며 창문을 앞발로 두들기기도 하였다.

그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둉구미를 들어 보았다. 그러나 둉구미는 언제나 둉구미 자체의 무게를 지니고 있을 따름이지 조금도 중량이 더하지는 않았다. 혹시나 황소 머리가? 하며 창문을 훌겨보나 그는 이내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참으로 견딜 수 없어 수도를 저버릴 결심으로 창을 열고 뛰어나가려 하였으나 오랜 유거(幽居)에 그의 힘이 빠졌는지 또 무슨 알지 못할 주문(呪文)으로 그 문이 봉해졌음인지 창은 도무지 열리지를 아니하였다. 그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결을 생각한 일도 있으나 이 역시 이루지를 못했다. 사람이란 각기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결국 알지 못할 숙명의 틀 안을 맴돌 뿐이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심심 산중에 단지 혼자 —— 그 공포와 고독과 적막이 뼈까지 스며들어 그의 이성을 빼앗아 가려 하였다.

어느 날 그는 실로 오랜만에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땅속에서나 울려 나오는 것같이 낮고 음음한 음성이었으나, 역시 그리운 사람의 소리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거 누구슈?”

대답이 없다. 그는 거듭

“거 누구슈?”

하였으나 역시 대답이 없다. 그는 몇 번이나 부르짖었다. 그러나 대

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문을 차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한참을 허두 없이 날뛰다 마침내 지쳐서 쓰러졌을 때, 그는 또 그 음성을 들었다. 점점 흘어져 가는 이성을 가다듬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음성은 자기 자신의 소리였다.

그는 전신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내가 미치려는구나！”

이제는 진실로 무서운 사실 ‘발광(發狂)’이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것 이었다. 그는 그와 싸울 자신이 없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꺼지고 환경은 애초부터 자기의 적이었다.

그의 입에서 불현듯

“관세음 보살”

의 다섯 마디가 흘러 나왔다. 뜨거운 눈물이 야윈 뺨을 주르르 흘러 내렸다.

“나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그의 마음은 차차 가라앉기 시작했다. 무슨 알지 못할 부드러운 손길이 자기 마음을 쓰다듬어, 자기를 지극히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것 같았다.

그 후 밥을 나르는 상좌 아이는 몇 번이고 먼저 갖다 놓은 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넋 잃은 사람같이 먹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상좌 아이의 존재도 눈에 들지 않은 것 같았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일심으로 외우며 둉구미 속에 그 말을 담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이 무아 무상의 경지 속에서 칠성당 앞 느티나무는 네번 째 짹이 텄다. 명운은 이제 ‘관세음 보살’의 다섯 마디 외에는 사람의 말을 잃었다.

어느 날 그는 이상한 충동을 느껴 눈을 들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오오! 정녕 황소 머리가——큰 황소 머리가 불쑥 나타나 그 어리석은 커다란 눈을 다정스럽게 껌벅거리고 있지 않는가?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둥구미를 들어 보았다. 그러나 그 둉구미는 엄청한 중량을 가져 쇠약한 그의 힘으로는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대사는 이 세상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초췌한 얼굴에 황홀한 법열(法悅)에 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에게 담담하게 그의 수행을 치하한 후

“사주불여상(四柱不如相)이요, 상불여심(相不如心)이니라. 만상이 불여심상(萬相不如心像)이니 부디 산된 마음을 삼가라. 너 조그만 수도에 만심하여 혹 신선지도(神仙之道)를 탐한다면 반드시 사도(邪道)에 들 것이라.”

하고 간곡히 타일렀다.

관상사 송명운의 이름은 경향에 널리 알려졌다.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려는 사람은 자기 전도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하여 명운을 찾았고, 세파에 시달린 사람은 자기 고초가 이제나 끝나는 것인가를 알고 다소나마 희망과 위로를 받기 위하여 그를 찾았다. 큰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그 성부를 점치기 위해서 찾았고, 어린 아들의 전도를 짐작하고서 아들을 데리고 찾는 어버이들도 있었다.

아무 불평 없이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도 혹시나 불의의 변이 가로막고 있거나 않을까 하는 기우로서 그를 찾았고, 아무런 희망도 바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러만 오기도 하였다.

간혹 실없는 건달패들이 농조로 덤비다가, 관상사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혀를 내두른 일도 있었고, 권문 세가에서 초빙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였다.

공포와 신비는 언제나 불가해(不可解)한 사태에서만 오는 것이어서, 모든 비밀을 탐지하는 능력을 가진 듯한 송명운의 눈은 그런 사람들에게 외포를 주었다.

자기에게 자신을 가진 자나 못가 진 자나 우매한 사람이나 교양 있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그의 움쑥 들어간 침침한 눈이 넌지시 자기를 쏘아볼 때는 까닭 모르는 전율을 느끼는 것이었다.

오랜 세월을 관상으로 보낸 명운도 상학의 오의를 획득했는지는 스스로 알 수 없었다.

스승의 말대로 상학(相學)이란 독립된 학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를 닦음으로써 무아 무상경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눈이 정파리(淨玻璃)의 거울이 되는 것이며 그 거울을 항상 흐리지 않도록 하려면 끊임없는 수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운은 고덕한 도사(道士)가 아니고 영특한 지사(智士)였다. 마치 명의(名醫)가 진지한 연구를 거듭한 후 임상(臨床)을 거쳐 비로소 명의의 명실을 갖추듯이 그는 오랜 세월에 스스로 터득한 경험에서 빚어 낸 개념(概念)과 어느덧 몸에 붙은 일종의 독심술(讀心術), 그리고 교묘한 유도법(誘導法)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독특한 관상의 일가를 이루었던 것이다.

원래 관상이란 황당한 장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에는 인지(人智)로 촌탁(忖度)할 수 없는 불가해한 것이 수다히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으레 신비성과 동시에 약간의 황당성도 가지고 있는 것인 아닐까? 물론 현저한 확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명운은 다소의 회의를 품은 채 역시 만심(慢心)이라 하리만큼 움직이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사십 가까워 젊은 과부를 아내로 맞아 늦게 얻은 아들이 금년 아홉 살, 이곳 난곡에 거처를 정한 지 이미 십 년이 넘었건만, 오늘따라 물소리와 새소리가 유달리 청명하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그는 눈을 감고 이렇게 외며 무의식중에 기계적으로 그 말을 받아

담았다. 실로 몇십 년 만에 뜻하지 않고 그 무아 무상의 경지를 찾았던 것이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문득 그의 심안(心眼)에 비치는 그림자가 있다.

눈을 뜨고 보니 활짝 열어제친 방문 앞에 큰 갓에 흰 도포를 입은 오십 전후의 사나이가 두 사람 서 있는 것이다. 명운은 그 중의 한 사람——작달만한 오종종하게 늙은 손의 모습에 ‘귀인(貴人)의 상(相)’을 보았다. 아니 느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일으켜 허리를 굽히며

“황송하옵니다. 대감! 누추한 곳에 이렇게 손수…….”

하고 공손히 손들을 맞아들였다.

그의 말은 확실히 객들을 놀라게 하였다. 명운이 무턱대고 ‘대감’이라고 부른 사람은 동행자에 비하면 그 풍채나 외모가 훨씬 떨어진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미상불!”

하는 경탄과 기대로 약간의 위압조차 느꼈던 것이다.

두 사람을 상좌로 인도한 명운은 윗목에 끊어앉아 객들의 얼굴을 살폈다. ‘대감’은 관상사를 쏘아보며 무릎에 얹었던 손을 들고

“어떻소?”

하듯이 몸을 약간 앞으로 내밀었다.

명운은 스르르 내리감았던 눈을 뜨고 정중히 입을 열었다.

“관형찰색(觀形察色)하오니, 옥당(玉堂) 청수 이백명운(耳白明潤)하오시니 출장입상(出將入相)이요, 천정(天庭) 방원(方遠)하옵시고 옥당명운 하오시니 보국충성(輔國忠誠)하오시리다. 비두(鼻頭) 절통(絕通)하오니 필유귀인(必有貴人)이옵고 비외(鼻外) 현담(懸膽)하오시니 재백(財帛) 풍족하오십니다.”

‘대감’은 넌지시 고개를 끄떡이고 동행한 자의 얼굴에 감탄의 빛이 감돌았다. 명운은 말을 이었다.

“간문(間門) 사침(似針)하시니 처방(妻房) 액사요, 패관(掛冠) 이방(二房)이로소이다. 와잠미(臥蠶眉) 난문(亂紋)하오시니, 정전(庭前) 보수(寶樹) 침수하옵고, 인중(人中) 파죽(破竹)하시니 만득귀자(晚得貴子)하오십니다.”

명운은 입을 다물고 귀인의 말을 기다렸다.

귀인은 한참을 덤덤히 앉아 있다가 더 들을 필요는 없다는 듯이 일어나 복채도 놓지 않고 가 버렸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보다도 오히려 사람의 비밀을 그토록 신묘하게 튀겨 내는 관상사의 요사함에 대한 막연한 혐오의 빛이 서려 있었다.

재빨리 귀인의 심정을 짐작한 명운은 속으로 빙그레 웃었다.

객들이 떠나자 하늘이 다시 흐려지고 또 비가 뿌리기 시작했다.

“나무 관세음…….”

그러나 그 말은 이내 입속에서 꺼져 버렸다. 조금 전의 그 거울 같은 심경은 다시 고개 들기 시작한 만심(慢心)으로 흐려져 갔다.

삼일 후 오정 지나, 재동 정보국 댁에서라 하고 사인교가 명운이 집에 대였다. 대감령으로 즉시 그 교군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명운이는 그가 지난날의 그 귀인임을 의심치 않았다.

한참을 흔들려 간 후, 교군은 어느 솟을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줄행낭 앞에서 멎은 교군 속에서 나온 명운은 하인에게 인도되어 큰 사랑 댓돌 앞에서 대령하였다.

지난날 그 귀인을 따라왔던 자가 누마루에 나타나 그를 방으로 인도했다.

방 안에는 그 귀인——정보국이 두어 명의 낯선 사람들과 술상을 받고 있었다. 명운을 보자 정보국은 다정하게 웃어 보이며

“우중에 오래서 미안하네. 자 우선 술부터 한잔 드세.”

하고 관상사에게 억지로 잔을 쥐어 주고 손수 가득히 술을 쳤다.

명운은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신 후 가만히 잔을 자기 앞에 놓고 은근히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찰색하였다.

주인 대감과 마주앉은 사람은 관골(觀骨)이 노골하고 간문이 난문하여 과운(科運)이 없고 처방이 좋지 못했으나, 와잠미가 명운하여 다자 다손의 상이고, 모로 앉은 사람은 비두가 절통하여 귀인의 상이 있으나 수상(守上)이 난문하여 족척(族戚)의 화가 많은 상이었다.

미리부터 명운의 소문을 듣고 온 듯한 손들이 관상을 청하므로, 명운이 찰색한 대로 말하였더니 좌중에 감탄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인 대감은 기색이 매우 좋았다. 체소한 몸집의 어디서 그런 음성이 나오나 의심되리만큼 우렁찬 소리로 웃고 떠들고

“이리 오너라——”

하고 하인을 불렀다. 상노가 뛰어와 댓글 아래 웅크리고 대령하니 그는

“너 안악에 들어가 도련님 모셔오너라.”

하고 분부를 내렸다.

한참 후 상노가 아홉 살 가량 되는 귀염성스러운 소년을 앞세우고 나왔다.

정보국은 몸소 일어나 아들의 손을 붙들어 앉히고, 귀여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그 조그만 손을 주무르며

“내가 만득 귀자할 상이란 말이 과연 맞네. 내 단 하나의 혈육이야. 어디 관상 좀 해 주게.”

하였다.

소년은 맑은 눈을 크게 뜨고 관상사의 음울한 얼굴을 무서운 듯이 건너 보았다. 소년의 얼굴을 살펴보던 명운은 얼굴을 흐린 채 좀처럼 입을 열려 들지 않았다. 일각 또 일각 침울한 공기가 떠돌기 시작한다. 정보국은 안타까운 듯이

“왜 내 아들의 상이 좋지 못하단 말인가? 그래도 헐 수 없지. 하여튼 말이나 좀 해 보게.”

그 음성에는 심려가 가득 차 있었다.

관상사는 허리를 굽히고

“아니올시다. 오히려 승어부(勝於父)의 상으로 체(體)는 학체(鶴體)요 귀인의 체옵고 순치 자색하니 필유 귀인이옵니다. 그러나…….”
“그러나…….”

“글쎄올시다. 워낙 우매하와 소인도 잘 알 수는 없사오나 스승의 말씀에 인당 흑색하고 산근(山根) 난문하면 필유 횡사라 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찰색하오니 늙은 눈이 흐려 그러하온지 그런 조짐이 뵈옵기에…….”

“무어?”

정보국은 부지중 주먹을 쥐고 상반신을 일으켰다. 인신(人臣)을 극하는 보국(輔國)의 몸으로서 일개 관상사의 말을 그토록 믿은 것은 아니나, 세 번 상처에 전후취 소생이 십여 남매가 넘었건만 내리 참척을 보아, 남은 혈육은 오직 그 어린 아들 하나뿐이고 보니 데인 가슴에 선뜻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애 얼굴에 흉조가 보인다고?”

“…….”

명운은 대답 없이 덤덤히 앉아 있다. 그 침묵이 먼저 한 말에 더욱 무게를 주었다. 정보국의 눈에는 관상사의 그 음울한 모습부터가 무슨 흉조를 띠고 있는 것 같았다.

불길한 침묵이 흘렀다. 정보국의 얼굴은 상심과 절망으로 햅쓱해지고 금시라도 실신할 사람같이 창백해 갔다.

일전에 난곡을 찾았던 그 풍채 좋은 자가

“대감! 한갓 천한 관상사의 말에 무얼 그리 상심하십니까?”
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하고 고개를 돌려
“방자한 자 같으니.”

하고 명운을 꾸짖었다.

관상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초상같이 앉아 있다.

관골이 나온 손이

“여보 속담에 ‘선처방 후약’이란 말이 있지 않소. 정연 얘기의 상

에 흥조가 보인다면 명판으로 이름난 사람아니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아니오?”

하고 의논조로 말을 붙였다.

또 침묵이 흘렀다. 명운이는 한참 후에야 무거운 입을 열었다.

“글쎄올시다. 폐흉취결하는 법이 있기는 하오나 그 성부는 스스로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정보국의 얼굴은 지옥에서 부처를 만난 듯 희색과 희망과 애원의 빛으로 가득 찼다. 그는 와락 덤비듯이

“여보게 참말 결초보은하겠네. 몇 사람 살리는 셈치고 예방을 좀 해 주게.”

평소의 위엄과 모든 허세를 버린 오직 애절한 어버이의 사랑의 부르짖음이었다.

명운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한참 후에 얼굴을 들고

“그러면 내일 미시(未時)경에 얘기를 소인의 집으로 보내십시오.” 하였다.

“대솔 하인 없이 말인가?”

“그것은 예방에 아무 관련이 없사오니 임의로 하옵시오.”

관상사가 돌아간 후 정보국은 초조한 하룻밤을 밝히고, 이튿날 심복의 하인에게 아들을 난곡까지 인도하게 하였다. 소년을 사인교에 타게 하고 교군 앞뒤에 하인의 호위를 하여 일행은 난곡으로 향했다.

괴상한 날씨였다. 비는 오지 않았으나 무거운 시커먼 구름이 내리덮어 천지가 캄캄하고 때아닌 음산한 바람까지 불었다.

기다리고 있던 관상사는 이상한 향내가 나는 방에서 소년과 단둘이 앉아 긴 주문을 외운 후 부적(符籍) 한 장을 소년의 원손에 쥐어주며

“이 부적을 꼭 쥐고 가시다가 누구이든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주시오. 액은 그 사람에게 옮겨 가서 도련님은 그 액을 면하시리다.” 하고 간곡히 일러주며 하인들에게는 그 부적을 다른 사람에게 건넬

때까지는 소년 옆에 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소년이 관상사의 집을 나가자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우레 소리가 울리고 굵다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젊은 아내가 안방에서 건너와

“만득이를 이모 집에 보냈는데 이 비를 맞지나 않는지…….”

하고 걱정스러운 듯이 미간을 흐렸다.

만득이는 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의 단지 하나의 자식이었다. 금보다도 은보다도 아니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이었다.

만득이——보국 대감의 은고를 받게 된 아비를 가진 만득이에게는 상인(常人)의 자식으로는 걷기 편한 앞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가?

아들은 무엇을 시킬까 아직 생각해 본 일도 없이 그저 충실하기만 바라던 그는 정보국에게 은의를 입히게 된 오늘에야 비로소 아들의 장래에 생각이 미쳤던 것이다.

비는 세차게 한줄기 한 후 이슬비로 변했다. 그 때

“아버지…….”

싸리문 밖에서 높은 소년의 음성이 들렸다. 언제나 집에 돌아올 때면 어머니를 부르지 않고 아버지를 부르며 들어오는 것이 만득이의 베룩이었다.

명운이는 앉은 채 고개를 내어 빼고

“오냐 만득이냐? 비 맞았지?”

하며 아들을 맞으려 하였다. 순간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손에 들었던 곰방대를 떨어뜨렸다.

만득이의 얼굴——그의 눈은 흑백이 무광하고 순지 창백하고 인당이 난문하여——확실히 사상(死相)이었다.

“으…….”

명운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려 하였으나 발음이 되지 않았다.

무심한 아들은 자랑이나 하듯이 그 아버지 옆으로 가서
 “아버지 참 이상한 아이두 다 있어요. 글쎄 내가 마악 골짜기를 올
 라오려니깐 나만한 애가 이걸 너 가지라구 쥐어 주구 가겠지요.”
 하고 손에 쥐었던 종이 조각을 펼쳐 보였다. 관상사는 보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가는 이내 짐작하였다.

만득이는 그날 이모 집에서 따 먹은 풋살구가 관격되어, 몹시 고통
 하다가 사흘 되던 날 세상을 떠났다.

관상사 송명운은 자기 손으로 그 무덤을 판격이 되었다. 물론 그
 것은 불행한 우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들의 주검의 자리에서 그는 스승의 해탈한 모습이 노기
 를 띠고 자기를 응시하는 것을 본 것 같았다.

인생 만사가 모두 인과 응보(因果應報)요, 자업 자득(自業自得)이어
 늘 고쳐 잡고 바로 놓는 수작은 헛된 것이기도 하거니와 반드시 사도
 (邪道)이니라 하던 스승의 타이름이 귀를 스치는 것이었다.

이 길을 잡아 들어 일생을 바치고 그 오의를 극하고자 한 그는 아
 들의 죽음으로써 자기 염원(念願)을 이루고 ‘신통력(神通力)’이랄까
 그런 능력에 대한 자신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그러한 자족(自足)보다도, 보다 깊이 겸허한
 참회가 자리잡아 만심과 사념(邪念)과 궤계(詭計)에 대한 벌인 듯도
 한 아들의 죽음에 깊이 고개를 숙일 따름이었다.

난곡 관상사 송명운의 이름은 그 아들의 죽음 후 더욱 신화적인 울
 림을 가졌으나 그 후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은 없었다.

(1948. 10.)